

국제수산 월간동향

2021. 1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

목 차

1. 일본, 장어 치어 수출 시기 규제 철폐로 채포 시기 수출이 가능
2. 코로나19 사태 속 미 수산물 산업 판매 부진 연속
3. 불법 태국 어선 인도네시아 해군에게 체포
4. 한국어선에 의한 살오징어 어획량 2만2천 톤 (홋카이도 어협 발표)
5. 부유식 FAD(dFADs) 군집 속도, 대서양에서 가장 빠르다
6.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ICCAT) 연례회의 결과

□ 일본 경제산업성-수산청, 일본장어 치어 수출 시기 규제 철폐

- 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산청은 일본이 일본장어를 채포하는 시기인 **12월~이듬해 4월** 까지 수출할 수 없었던 수출 시기 규제를 철폐하기로 함
 - **(목적)** 일본 장어를 활용하는 중국, 한국, 대만 모두 자원을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해 치어를 상호 간에 수출로 더 활발히 유통시키고자 하는 것
- 일본장어에 대해 국제적인 자원관리가 실시되고 있어, 각국이 양식장에 넣을 수 있는 치어 수량 상한이 정해져 있음
- 21년 어기 (20년 11월~21년 10월) 상한은 일본 21.7톤, 중국 36톤, 한국 11.1톤, 대만 10톤
- 일본은 정해진 할당량 안에서 **각국과 치어 자원을 유통시켜나가면서 장어 자원을 장기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방침
- 이번 규제 철폐는 **동일한 규제를 두고 있는 대만을 의식한 측면도** 있음
 - 먼저 **일본이 규제 완화를 도모하면 대만도 수출 시기 제한을 철폐할 수도 있다는** 전략적인 측면이 있음
 - **중국, 한국은 수출 시기 제한이 없음**
- 일본과 대만은 각각 치어 채포 가능 시기가 다름
 - 일본 12월~이듬해 4월, 대만 11월~이듬해 3월
- 일본과 대만은 양식장에 치어를 넣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원래는 상호 간에 수출을 주고받고 해왔지만, 산업 보호를 이유로 일본이 '76년에 12월~이듬해 4월 수출을 규제

- 대만도 '07년 11월~이듬해 3월 수출을 규제
- 일본의 장어 치어 수입은 홍콩으로부터의 치어가 대부분을 차지
 - 재무성 무역 통계에 따르면 양식용 장어 치어 수입량 중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년 어기가 75%, '19년 어기가 92%, '18년 어기가 98%
- 수산청에 따르면, **홍콩으로부터 수입되는 대부분은 중국산으로 보임**
- 대만에서 채포가 시작된 11, 12월에는 홍콩에 밀수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홍콩 루트로 불리는 불투명한 거래에 의한 치어도 일부 있었지만, 수출 시기 규제 철폐를 통해 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침
- 일본은 향후 **수출무역관리령 운용을 변경할 예정**
 - 장어 거래업자는 산지나 양식장 보유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신청하여 수산청으로부터 사전 확인증 교부를 받으면 12월~이듬해 4월 사이에 수출이 가능해짐
 - 운용 변경은 2월 1일을 예정

※ 출처: 미나토 신문¹⁾

1)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08191> (21년 1월 26일 검색)

□ NOAA 수산업계 종사자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상쇄 노력 이어가

- 미 수산 및 해조류 부문은 170만 명의 고용과 2,000억 달러 연매출을 창출해온 산업임
- 하지만 미 NOAA*의 최근 수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2020년 큰 하락세를 보였다고 함
 - * 미해양대기청 :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 분석가들의 말에 따르면 지난 3월 시작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코로나 조치로 수산물 판매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침
- 작년 1, 2월까지만 해도 상업 수산물 수익이 3퍼센트 증가하며 좋은 출발을 보였으나, 3월 코로나 조치 이후 19 퍼센트 하락하기 시작하여 7월에는 45 퍼센트까지 곤두박질침
- 식당 폐쇄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안전 조치 역시 수산물 경제의 기타 부문들에 손실을 가져왔으며, 2020년 2/4분기 말에는 양식, 아쿠아포닉 등 기업들은 코로나로 인해 74 퍼센트의 판매 손실을 보고함
- 교역 부문에서는 국제 시장이 수확과 가공, 운송에서의 차질로 인해 악영향을 받음
- 수산물 수출 가치는 지난 전반기 동안 과거 5년 대비 18 퍼센트 하락하였고, 신선 제품 수출은 냉동식품 수출에 비해 더욱 심각한 하락세를 보였음
- 대미 수산물 수입 역시 동 기간 4 퍼센트 하락하였으나, 미국 다량어 수입이 25 퍼센트 증가하며 상쇄됨
- 동 NOAA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미 산업에서의 손실은 연방비상재난기금으로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 함

- NOAA에서는 3억 달러의 수산물 지원금을 각 주와 영토 등에 할당하였음
- 동 지원금은 미 주간 위원회(interstate commissions)의 도움을 받아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분배되고 있음
- 이에 더해 외국 정부의 보복관세 영향을 받은 어민 및 산업 지원을 위한 5억 3천만 달러의 수산물교역구제프로그램 지원금이 미 농무부에서 제공됨
- 크리스 올리버 NOAA 부청장은 미국 수산물 공급사실을 재건 및 회복하고 회복력을 강화하여 2021년과 그 이후로 회복세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함

※ 기사 출처: EurekAlert²⁾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21-01/nh-ufa011521.php ('20년 1월 26일 검색)

□ 북 나투나해에서 불법조업 발견 후 도주 시도

- 지난 금요일 북 나투나해에서 불법 어업 중이던 태국 선박이 인도네시아 해군에게 체포됨
- 정기 순찰 중이던 인도네시아 군함 KRI Usman Harun-359호는 금요일 인도네시아 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하던 태국 국적 어선을 발견함
- 인도네시아 Command 1 함대 해군소장 Adbul Rasyid는 현재 해당 어선이 Ranai 해군기지로 이송되어 조사 중임을 서면으로 발표함
- Rasyid 소장은 인도네시아 해군은 자국 주권 보호와 법질서 유지를 위해 자국 수역을 상시 순찰하고 있음을 알리며, 코로나 사태에도 보건 수칙을 지켜가며 순찰을 이어나갈 것이라 말함
- 이어 인도네시아 해군은 자국 수역 내의 불법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주저 없이 조치를 취할 것이며, 해당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이 발생한 북 나투나해는 Command 1 함대 소관 수역임을 설명함
- 해당 인도네시아 군함 KRI Hsman Harun호가 인도네시아 베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외국 어선을 발견하자, 군함의 함장 Binsar Alfred Syaiful Sitorus 대령은 불법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어선으로 접근을 명령함
- KRI호의 접근을 알아챈 어선은 속도를 높이며 북쪽으로 도주를 시도하였으나 KRI 함장의 정지 명령과 함께 추격 끝에 도주는 결국 무산됨

- 이후 승선검색과 선박 내 문서 압류가 이어졌으며, 해당 태국 어선에는 두 명의 태국인과 일곱 명의 인도네시아 선원이 승선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짐

출처: antaranews.com ³⁾

<https://en.antaranews.com/news/166600/illegal-taiwanese-fishing-ship-comes-under-indonesian-navys-net>
(*20년 1월 26일 검색)

□ 한국어선 살오징어 어획량 2만2천 톤,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

- 홋카이도 기선 어업 협동 조합 연합회에 따르면 한국어선에 의한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 (EEZ) 내의 관리년도 어기 개시 ('20년 7월 1일)로부터 12월 말까지의 살오징어 어획량은 2만 2,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
- 지금 어기의 어획 가능량 (TAC) 8만 5,930톤에 대한 소회율은 약 25%
- 18년도 어기에 시험적으로 TAC가 설정되어 19년도부터 정식 TAC로 설정
- 1년간 1만 1,000톤을 생산하여 동향이 주목된 쌍끝이 서해 트롤 생산은 12월 말에 5,780톤
 - 전년 동기의 6할에 못 미치는 양이지만 전체의 4분의 1을 넘는 생산량으로 일정 수준의 존재감을 보이고 있음
- 주요 어업인 근해 오징어 어업은 9,240톤으로 16% 증가

※ 출처: 미나토 신문⁴⁾

4)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08411> ('20년 1월 27일 검색)

5

부유식 FAD(dFADs) 군집 속도, 대서양에서 가장 빠르다

- 최근 ICES 해양과학 저널에 부유식 FAD(dFADs)에 대한 다랑어 군집 역학에 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음.
- 이 연구는 IRD, 프랑스, 코트디부아르 해양학연구소로 이루어진 팀의 과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음. 저자들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서부 인도양과 동부 대서양 바다에서 프랑스 열대다랑어 선망선들에서 투척된 dFAD에 부착된 음향 측심기 부이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를 수행하였음.
- 연구자들은 다랑어 군집과 관련된 여러 지표들을 평가하였음. 여기에는 새로운 dFAD 투척으로부터 어군이 형성되기까지 소요 시간; dFAD에 다랑어가 군집한 평균 시간 및 다랑어 군집 시점 사이 dFAD가 비어 있는 시간 등이 포함됨. 연구진은 9,000개가 넘는 장치들의 궤적 데이터를 분석하였음.
- 연구자들은 먼저 그들의 분석을 위해 사용할 지표들에 대한 정의부터 마련해야 했음. 다랑어가 군집해 있는 시간은 음향 데이터의 분류를 통해 파악하였음.
- 실험 시간은 부이를 장착한 dFAD 투척과 그것에 대한 최초의 조업(즉, 투망 또는 부이 회수) 사이의 일수로 정의되었음. 어군 형성 시간은 dFAD 투척과 부이를 통해 어군이 탐지된 최초일자 사이의 일수로 정의되었음.
- 연구 결과에 따르면, dFAD에 어군이 형성되기까지 소요된 평균 시간은 대서양에서 16일, 인도양에서는 40일이었음. 또한, dFAD에 다랑어들이 군집한 시간은 시간과는 무관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평균적으로, dFAD에 다랑어들이 계속 군집해 있는 시간은 대서양에서 9일,

인도양에서는 6일이었음. 연구진은 이 점을 흥미롭게 여겼고, 어종 구성 및/또는 주변 조건(예, 먹이, 동종 어류, 또는 부유물 밀집도)이 군집 역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음. 이전에도 여러 연구자들이 FAD에 대한 어군 형성은 비다랑어 어종이 FAD에 군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수 있다고 추정하였음. 그러므로, 이러한 초기 어군의 정착이 새로운 dFAD에 대한 다랑어 어군 형성 시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일 수 있음.

- 또한, 연구에 따르면 어군이 형성된 이후에도, dFAD에 어류가 군집해 있는 시간의 비율은 대서양(63%)이 인도양(45%)보다 길었음. 연구는 이 새로운 발견들이 자원평가 모델에 반영됨으로써 열대다랑어를 위한 (어획 및 노력 데이터와는 독립적인) 대안적인 풍부도 지수 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음. 이는 또한 dFAD가 다랑어 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

※ 출처: atuna.com 5)

5) <https://atuna.com/news/study-states-tuna-aggregate-faster-in-new-dfads-in-the-atlantic?highlight=WyJkZmFklI0=>
(2021년 1월 9일 검색)

□ 기간/장소 : '20.10~'21.1 / 서면회의*

* 기술, 보안, 회의시간 조율 등의 이유로 일부 CPC들이 화상회의 개최 반대

□ 회의결과

1. 패널1 (눈다랑어, 황다랑어, 가다랑어)

○ '19년 이행평가표 검토

- (EU 쿼터) EU의 미소진 눈다랑어 쿼터 이월과 관련하여, 미소진 쿼터 산정 기준이 기본쿼터 또는 조정쿼터인지에 대한 의견 대립*

* 이행위 의장은 예전 관행은 조정쿼터 기준이었다는 의견 제시

- (소량 어획국) 어획한도 없는 소량 어획CPC들*의 '최근 어획수준'을 이행평가표 내 '어획한도'로 명시한 부분 삭제

* 2014-2017년 기간의 평균어획량이 1000톤 미만인 CPC들은 어획 및 노력을 최근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 장려되고 있음(권고 19-02 4항 d))

○ 열대다랑어 보존관리조치(19-02)

- (논의 배경) 19년 연례회의에서 채택된 권고 19-02가 '20년에만 잠정 적용되어 '21년에 적용될 조치의 채택을 위하여 논의
- (논의 경과) 새로운 조치의 도입을 위한 논의는 서면회의에서 사실상 불가능하여 권고 19-02를 '21년으로 연장하는 의장안이 마련
- (논의 결과) 3라운드(각 2주)에 걸쳐 논의했으나, 일부 CPC들의 반대*로 '21년 적용을 위한 조치 채택에 실패, 총회에 해결 요청

- * 보존관리조치 28항 및 31항에 따라, FAD 금어기 및 세트 제한에 대한 과학위원회(SCRS)의 조언이 있기 전까지 '21년 눈다랑어 TAC 및 선박당 FAD 개수 제한은 '20년 기준(62,500톤, 350개)으로 동결되어야 함을 주장

○ 2021년 회기간 작업 계획

- **(의장안)** 4월(MCS·보고의무) 및 6월(FAD)*에 화상회의 개최, 과학위원회의 눈다랑어 자원평가 실시 이후 대면회의** 개최

* 20년도 데이터가 가용하고 SCRS에 의해 분석 완료되어야만 개최 가능

** 주요 의제: 22년 및 향후 눈다랑어 TAC, TAC 할당기준, 어획능력 제한 등

- **(논의 결과)** 의장안에 명시된 의제는 예시적인 것이고, IMM 작업반이 패널1의 여러 이슈들을 다루고 있으며, 그 결과는 패널1에 의해 검토될 것임에 주목' 하며 채택을 위해 총회에 제출됨

2. 패널2 (북방 날개다랑어, 참다랑어)

○ 신규 회원 가입

- 카보베르데와 영국이 신규 가입하여 총 가입 CPC 수는 29*가 됨

* 패널1: 41, 패널2: 29, 패널3: 13, 패널4: 41 (ICCAT 체약국: 53)

○ 북방 날개다랑어 보존관리조치(16-06, 17-04)

- **(TAC)** '21년 37,801톤으로 설정(18-20년: 33,600톤), 4개 CPC에 쿼터 할당 (EU: 29,095.1톤, 대만: 4416.9톤, 미국: 711.5톤, 베네수엘라: 337.5톤)
- **(어획한도)** EU, 대만, 미국,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CPC들*의 '21년도 어획한도는 242톤으로 설정 ('17-'18년: 200톤, '19-'20년: 215톤)

* 일본의 '21년도 북방 날개다랑어 어획한도는 일본의 '21년도 대서양 눈다랑어 총어획량의 4.5%로 제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쿼터 이월)** 19, 20, 21년도 미소진/초과량은 각각 21, 22, 23년도 어획한도에 대해 가산/차감(한도는 기본쿼터의 25%)
- **(쿼터 전배)** '21년에 대만은 벨리즈에 200톤을 전배하는 것이 승인
- **(자원평가)** 매 3년마다 실시(차기: '23년), 위원회는 장기 관리절차 채택을 위하여 '21년에 잠정 HCR을 검토해야 함

○ 서부대서양 참다랑어 보존관리조치(17-06)

- **(TAC)** '21년에는 2,350톤(폐기량 포함), SCRS의 조언*을 토대로 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22년 1685톤, '23년 1632톤으로 설정

* '23년까지 최소한 50%의 가능성으로 과도어획을 끝낼 수 있는 수준 모색

- **(MSE)** SCRS는 예비 관리절차들에 대한 실험을 계속하고, 총회는 가능할 경우 '21년, 늦어도 '22년까지는 관리절차를 선정
- **(자원평가)** '21년에 자원평가 실시(미실시할 경우 '22년에 실시), 외부 전문가에 의한 검토 수행 후, 참다랑어 작업반에 결과 제출

○ 동부대서양 및 지중해 참다랑어 보존관리조치(19-04)

- **(TAC)** 총생물량 지표 분석 결과, '17년에 제공된 관리조언을 변경할 증거가 없었으므로, '21년, '22년에 36,000톤으로 설정*

* '22년 TAC는 SCRS의 조언을 토대로, 적절할 경우, '21년 총회에서 변경

- **(쿼터 할당)** '21년 쿼터 할당은 '20년과 동일, 나미비아와 러시아의 쿼터할당 요청은 합의되지 않고 '21년 연례회의에서 다시 논의
- **(쿼터 이월)** '20년 미소진 쿼터를 '21년도로 이월 가능(최대한도 5%)
- **(쿼터 전배)** '21년에 대만은 한국에 최대 50톤 전배 가능(5항), 필요시, '21년 연례

회의에서 CPC간 전배 조항(10항)에 대한 해석* 논의

* 10항에서는 'CPC간 전배는 전배 당사국 간 승인에 의해서만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5항에서 CPC간 전배 내용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 여부(17-07에서는 위원회의 승인도 필요함을 규정하였으나, 18-02, 19-04에서는 해당 CPC간 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

- **(최적 어획율)** SCRS는 '09년에 채택된 선박유형별 최적 어획율을 늦어도 '21년에, 그리고 매 자원평가 시 검토*

* 어구 및 조업 위치별로 구체적인 수치 산출

○ '21년 패널2 회기간 회의

- **(일시/장소)** '21.3.2(화)~5(금) / 화상회의

	회의 시간 (한국 기준)	의제
3.2 (화), 3.3 (수)	17:00~19:00, 19:30~21:30	조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3.4 (목), 3.5 (금)	21:00~23:00	19-04 조항 명확화 (컨소시엄 요청) 양식장 성장률 (참다랑어 작업반 요청) 날개다랑어 비상상황 절차 초안

○ 지브롤터의 일방적인 쿼터 설정

- **(논의 결과)** 동 이슈는 '21년 연례회의에서 논의, 사무국은 일본의 2가지 질문*을 지브롤터에 전달

* (1) 브렉시트가 동 건에 미칠 영향 (2) 지브롤터의 어획물 수출 여부

○ SCRS 보고서 공개 및 승인에 관한 절차

- **(논의 결과)** 웹사이트에 게시되기 전, 희망하지 않는 발견에 관한 내용이 승인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총회가 논의할 것을 권고

3. 패널3 (남방 날개다랑어)

○ 남방 날개다랑어 보존관리조치(16-07)

- **(쿼터 이월)** 9개 CPC*가 미소진 쿼터 이월('19→'21) 통보, 9개 CPC의 이월량이 모두 기본쿼터의 25%이므로 유보 미소진량 추가할당 없음

* 벨리즈, 중국, 대만, EU, 일본, 나미비아, 남아공,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우루과이

- **(논의 결과)** 현행 권고를 '21년에 연장 적용하기로 합의

4. 패널4 (기타 어종)

○ 북대서양 청상아리 보존관리조치(19-06)

- **(논의 배경)** 현행 권고(19-06) 11항에서 20년도에 회기간 회의를 개최하여 총회에서의 채택을 위한 새로운 권고를 마련할 것을 요구, 3개(EU, 미국, 캐나다*)의 제안서가 서면회의에 제출되어 논의됨

* 캐나다는 남대서양을 포함한 대서양 전역을 위한 조치를 제안하였고, 가봉, 세네갈, 영국, 대만, 노르웨이도 동 제안서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

- **(제안서 주요내용)**

	현행	EU	미국	캐나다
TAC	없음	500톤	21년 : 700톤 22년 : 500톤	0
선내 보유	예외적 허용	예외적 허용	예외적 허용	예외적 허용
예외 조건 및 기타 주요 내용	<p>(예외1) 올렸을 때 폐사한 상태이고, 옹서버에 의한 확인 및 관련 데이터 수집(12m 미만 선박은 옹서버 미적용)</p> <p>(예외2) 생존 상태로서, 최소체장(암: 210cm, 수: 180cm) 충족</p> <p>(예외3) 국내법으로, 폐사한 어류는 모두 양륙되어야 하고 해당 어류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규정</p>	<p>(예외1), (예외2)은 동일, (예외3)은 미규정</p> <p>(옹서버 커버리지) 2023년까지 20% (EM 포함)로 상향</p> <p>(연승선 어구) 2022년 1월부터 모든 연승선은 모릿줄과 아릿줄에 데이터 수집 장치 설치 (수심, 투승·양승 시간, 수온 측정)</p>	<p>(예외2), (예외3)은 동일, (예외1)의 전장 12m 미만 선박의 옹서버 예외는 미규정</p> <p>(연승선 어구) 나일론 모노필라멘트, 환형낚시 사용</p>	<p>(예외1), (예외2)는 삭제, (예외3)만 허용</p> <p>(남방 TAC) 2001톤, 2년 연속으로 TAC 초과 시 조치 재검토</p>

- **(논의 결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안 채택에 실패, 21년에는 현행 조치(19-06)가 연장 적용되고, 회기간 회의*에서 재논의

* '21.7.12~15 (대면회의로 예정되어 있으나, 미확정 상태)

5. 재정행정위원회

- '21년 예산·분담금 결정

구 분	2020년	2021년	비고
전체 예산	4,222,708 유로 (약 55억 5,134만원)	4,489,286 유로 (약 60억 3,517만원)	6.31% ▲
한국 분담금	28,854 유로 (약 3,793만원)	30,035 유로 (4,038만원)	4.09% ▲

- **(예산 증가)** 사무국 직원 급여(3.5%), 연례회의 비용(33%), 외부 전문가 용역(106%), 연구 프로그램(161%)
- **(예산 감소)** 출장 비용(-50%), 개도국 회의참석 지원(-86%)